

순정이

부활 제6주일

제 1 독서 : 사도 10, 25-26, 34-35, 44-48

제 2 독서 : 1요한 4, 7-10

복 음 : 요한 15, 9-17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 12-13).

강론

그리스도교인의 사랑

김진석 신부/시기동 천주교회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요한 15, 17).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다. 얼핏 보기에 사랑을 계명으로 정한다는 것은 논리상의 모순처럼 느껴진다. 통속적 의미에서 사랑이란 감정이나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호의적인 관계를 뜻하며, 계명이란 각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조건 그리고 감정 상태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연애 소설이나 유행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루가 6, 32)는 말씀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말은



여명

오월은 왔어도

신광연(가브리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쉼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파릇파릇 신록이 화사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주말의 한가함을 틈타 가족들끼리 풀내음 가득한 들을 찾아 일상의 번잡에 찌든 심신을 달래는 것도 좋을 것ियो 쯤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온천을 찾아 따끈한 온천물에 피로를 푸는 것도 건강에 큰 보탬이 될터이다. 다른 어느 곳인가에 아무리 큰 즐거움이 있다 해도 이를 싫다하고 찾아가 푸근하게 안식을 찾는 곳—우리의 가정마다에 그러나 과연 평화가 깃들고 있는가.

오늘날에도 이 나라 많은 가정의 단란과 안식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첫째, 신변의 불안이다. 학교에 나간 자녀가 또는 직장에는 나간 남편이 무슨 까닭인지도 모르고 서슬 퍼런 기관에 끌려가 며칠씩 곤욕을 치뤄도 영문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다음은 각종 폭력범에 대한 불안이다. 물질적 풍요와 일부 계층의 과소비 풍조, 이에 대조되는 무산계층의 상대적 빈곤감과

* 5월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그대들의 미래요 희망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요구된다. 5월은 청소년의 달, 특히 소외되고 사회와 가정에서 냉대받는 청소년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이 사례는 상담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옛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끔찍한 애정을 보여왔다. 난리통에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얼싸안은 채 총알받이가 되기도 했고, 100일 정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세 번씩 이사를 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는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도 했다. 그에 비해 현대의 어머니들은 인스턴트 음식의 발달로 인해 모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다. 극히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소년 죄수들의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례 ①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형. 홀로 되신 엄마의 사랑을 듬뿍받는 막내. 공부도 특별한 재주도 없는 이 소년에겐 엄마의 차가운 시선과 말씀은 질책으로만 느껴지고 결국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엄마의 재혼은 자신을 버리는 것만 같았고 타지로 새아빠를 따라가면서 유독 이 소년만 외가에 맡겼던 것이 본질적인



도하는 자녀들이 있다.

이번에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이해해보자. 부자이어야 되고 권력이 최고이고 정의가 아물아물해지는 현대에 청소년들은 일확천금을 꿈꾼다. 어른들처럼.

사례 ③

사내에서 최대의 권력을 쥐다던 조직. 이 소년은 고

사례 ⑥

폭력2범. 탄광촌에서 얻어온 아빠의 병고로 엄마가 막노동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하루 먹고 살기에 바쁜 이 가정은 자식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틈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기는 호기심 많은 나이. 배회하다 만난 친구들은 단정치 못한 친구들이었다. 아들을 소년원에 보내고 가난을 한탄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그걸 돌려주지 못했다며 한탄하는 모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례 ⑦

이 소년은 3범으로 고아이다. “왜 그리 내 집처럼 들락거려나?”는 질문에 “선생님, 전 이곳이 더 좋아요. 굶을 걱정 없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요.”

어느 재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난다. “왜 빵을 훔쳤나?”는 판사의 질문에 이 노인은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단다. 이 노인의 형은 벌금 10불이었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단다. “이 노인의 벌금은 10불이지만 내 벌금은 30불이요. 그동안 배불리 먹은 죄의 벌금이요.” 그리고 모자를 돌려 그 자리에서 걸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 노인에게 줄 수 있었다.

우리가 배부를 때, 따뜻할 때 고통과 험벗음에서 아

△○△ 내 삶의 묵

라일락꽃 향기와 봄꽃들의 축제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으며, 저마다의 모습과 향기로 창조주를 찬미하고 마음껏 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정음농공고 식품가공실 이강배(모세·45세) 교사. 뜨락에 부끄러운 듯 피어난 작은 꽃처럼 말없이 좋은 모범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는 교사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신앙인으로서의 충실함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소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사랑할 거리가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그는 64년에 영세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은 부인 김덕복 씨(안젤라·43세)와 세 아들이다. 그의 신앙의 맥은 기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 매사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고픈 의지, 성서에서 초대하는 복음적인 삶이 그가 추구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의 일이다.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 자리를 구하고 있을 즈음에, 늘 다니던 대연 성당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조배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본당수녀님이 “가정교사를 구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지 않겠어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하느님의 현존이 강하게 느껴졌으며 오롯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작은 체험은 그의 신앙을 부추겨주었고 새롭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후 교회활동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고 85년에는 영등동 성당 사목

“주님은 나의 기업, 내 잔의 몫이시니,
내 제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시편 15).

이강배(모세)/시기동 성당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에는 시기동 성당에서 전례부장과 레지오 활동을 하며, 매일미사를 통해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며 묵묵히,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저녁9시가 되면 가족이 모여 하루를 마



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주님의 품안에서 쉼터를 찾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자 교사들의 모임인 ‘돈보스코회’가 있어 1달에 1번씩 모여 성서읽기, 성서연구를 하며 성지순례와 친목도 나누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고, 기도생활에 열심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확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평범하지만 숨은 진주처럼 빛을 발하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보시고 참 좋아하시리라 느껴진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 영세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을 삶의 몫으로 선택한 행복이 잔잔히 깃들여 있다.

요십이 (926) 김병오

6공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두산그룹폐쇄사건
염색공단폐쇄방류사건
수서비리사건
대학생교수폭행사건

부녀자 납치사건
화성부녀자연쇄살인사건
검사와광패회식사건
세무공무원독직사건
원전유독가스사건

직업병환자자살사건
전경부녀자성폭행사건
전경대학생폭행치사사건
교도관독직사건
이제 그만 하시오

당신 누구요?
나 몰래우요

복자 성당

김대건 신부와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지 중의 성지

교구소식

1. 성직자, 수도자 성서 연수회 : 5월6일(월)~8일(수)
천호 피정의 집.
2. 고등부 교사 연수 : 5월12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부서별



행복한 가정

배 형 신(로사리아) / 호성동 성당

저는 가정사목에 속하는 '행복한 가정운동' 자원 봉사자로서 약 3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과 부활을 드리려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도 극히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미혼모 상담, 입양, 청소년 상담 등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많은 일을 하지만 그중 자연적인 피임방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임신도 도와드리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낙태가 무엇인가를 계몽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무지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태어나는 60만의 생명보다 갑절이 넘는 살인을 하고 있으며 엄마 자신의 몸도 병들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적인 방법에 따르는 회생이 싫고 번거워서 거의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 권하는 법을 마다하고 불임수술을 합니다. 지금은 하느님 믿는다고 순교의 칼을 받진 않습니다. 원하지 않던 자녀도 낳아 기르고 일정기간의 금욕, 이런 것들이 현대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다 자르고 내버리고 편하게 살려 한다면 우린 예

수님을 닮아갈 수도, 그분의 길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레지오 단원은 본당마다 철철 넘쳐도 전 주교구에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전주에만 네명이니 다른 곳은 홍보나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따금 후보에 내어도 찾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시대의 거대한 나쁜 조류 앞에 우리 봉사자들의 힘으론 너무 연약하여 애가 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신자 한 사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면 머지않아 생명 경시 풍조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바라건대 모든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비자 교리 시간에 교회에 이런 법이 있고 낙태가 꼭 살인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낙태를 살인이라 생각치 않는 시대적 조류와 죄에 대한 무던 마음이 더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인 이 일에 동참해주실 분은 문을 두드리주십시오. 이 일은 얼마나 성모님의 일과도 조화가 잘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의 자원 봉사를 바랍니다.

성 모 님

내 마음에 주님 사랑
넘쳐 흐를 때
어머니 얼굴에
웃음 퍼지고

어머니 고운 얼굴
슬픔이 가득

마음과 마음마다
사랑 샘물 만들자
어머니 얼굴 언제나
웃음 퍼지게

● 시인 서 정 슬 ●

내 마음에 질투 미움
가득찰 때

알고 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베이비 붐’

일시: 1991년 5월 20일(월) 오후 2시30분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 1,000원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유능한 숙녀 와이아트. 그녀의 생활 전부는 일이다. 중역으로 승진되기 직전, 유산으로 13개월 된 아이를 받게 되어 아주 고전을 한다. 결국은 직장을 잃게 되고 본능적인 모성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의 엄마와 사업가로서 대승리를 거둔다.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

* 5월에 권해드리는 책

내 친구들 - 어린이 잡지



귀여운 어린이들을

굳은 신앙심으로 이끌어주고 안내해줄

어린이의 벗 월간 만화.

정가 2,000원

1년 구독료 20,000원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향
보좌신부 82-9664 수녀원 82-9662 보좌신부 주 목 성
사목회장 노 송 남

1. 가정방문: ① 7월 전9시-인후5반 중노1가9반, 후2시-인후4반 중노1가8반 ② 8월 후2시-인후3반 중노1가7반 ③ 9월 전9시-인후2반, 후2시-인후1반 ④ 10월 전9시-중노2가7반 중노1가6반, 후2시-중노2가16반 중노1가5반.
 2. 모임: 율트레아-오늘 후8시, 부녀회상임위원회-8일 어머니미사후, 3. 예수승천대축일 야외미사: 12일 전10시 장소-효자우전국민학교, 도시락지참(본당에서는 새벽미사와 저녁미사만 있음).
 4. 축! 결혼: 11월 12시, 신랑-장용기(토마스) 신부-이영신(비비안나), 5. 금주 청소: 중노1가7·8반 차주청소-중노1가9·10반.
- ☐ 지난주 봉헌금: 795,400원 ☐ 교무금: 1,03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가정방문: 7일(화) 중앙동1반, 8일(수) 중앙동2반, 10일(금) 완산동, 16일(목) 고사동1반, 17일(금) 고사동2반(시간: 오후2시).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3. 대간회: 오늘 공식미사후.
 4. 구리아: 오늘 오후2시, 5. 구역분과회: 7일 오전10시.
 6. 여성분과회: 11일 오전10시 7. 오설회: 19일 공식미사후로 변경, 8. 청년회: 5일 공식미사후로 변경.
 9. 예수승천 야외합동미사: 12일 우전 국민학교(학생미사와 공식미사 본당에 없음), 성당청소: 11일 평화의 모후Pr. 농하신 정녀Pr.
- 금주 전례: 해설-엄은희 독서-봉헌-유복규, 김인숙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36,540원 ☐ 교무금: 951,63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예수승천대축일: 다음주 우전국교 미사 10:00, 차량준비 되었음. 우전지 본당미사.
1. 구리아: 공식미사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미사시간 변경: 매일 저녁미사 8시, 금요일-새벽미사로.
 4. 청소봉사: 천주의 모친.
 5. 성모회 임원 선출: 회장-강순옥(논나), 부회장-정금자(벨라벳), 서기-최인순(데레사) 수고하시겠습니다.
 6. 금주 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 이윤봉 ② 이준봉 봉헌-강문옥, 황대호 씨 부부
- 차주 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 강경용 ② 김순이 봉헌-이기봉, 이윤희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256,000원 ☐ 교무금: 8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오늘은 부활제6주일! (5월은 성모성월!).
1. 회의: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 ② 프란치스코 3회-5월19일(일) 오후2시.
 2. 모임: ① 율트레아-5월8일(수) 저녁미사후

※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야외미사: 12일(일) 오전 10시 장소-우전국교 운동장 (삼천동, 금구, 금산사행 시내버스 이용)

- ② 전례부-5월16일(목) 오후8시.
 3. 알림: 새벽미사시간 변경-5월5일(오늘)부터 실시함(주일및 평일) ② 예수승천대축일합동 야외미사-5월12일 오전 10시, 효자동 우전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미사후에 각종행사 있음(남전주 지구), ③ 첫영성체교리-5월7일(화)부터 매일 오후5시(국교3년이상자) ④ 수녀원피경-5월13일(월)부터 5월18일(토) 본원에서.
- ☐ 지난주 봉헌금: 554,050원 ☐ 교무금: 52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예수승천 대축일 지구 합동미사: 12일(일) 오전10시-오후4시-삼천동 우전국민학교(본당미사는 새벽6시 미사만 있음).
 2. 구리아: 오늘 공식미사후.
 3. 반미사: 7일 오후3시-서완산동2가 1·2반, 8일 오후8시-APT동면 4반, 9일 오후8시-서완산동1가.
 4. 자모회: 10일(금) 어머니미사후(많은 참여 바람).
 5. 본당 율트레아: 14일(화) 저녁미사후.
 6. 축하합니다: 11일(토) 12시30분 전동성당(황현숙 세시리아, 김양호 베드로의 혼인성사).
- ☐ 지난주 봉헌금: 415,500원 ☐ 교무금: 732,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현금 바람.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재속글라리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3.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7시, 반기도회-7일-10일, 반미사-7일-남노4반, 8일-동교4반, 9일-남노1반, 10일-동원5반, 4. 돈보스코회: 8일 저녁7시30분, 5. 구역반장회의: 9일 오전11시, 6. 유아세례: 11일(토) 오후3시, 7. 자모회: 다음주 오전10시, 8. 첫영성체교리: 7일(화) 오후4시, 9. "축" 예수승천대축일 야외미사 및 남전주지구 체육대회, (본당미사: 새벽5시30분미사만 있음), 다음주 오전10시, 장소-우전국교, 금주보수비 현금액: 3,675,287원 현재대금총액: 222,284, 369 금주보수비 수입액: 없음 현재대금총액: 253,119,618원
- ☐ 지난주 봉헌금: 1,594,39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축! 예수승천 합동 야외미사: 12일 전10시, 장소-우전국교,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 본당미사-전6시 미사만 있음.
2. 구역반 회장 연수: 7일 전10시30분, * 반회장 모두 참여바람.
3. 교구사제 연수: 6일-8일, 말합의 전례와 영성체 있습니다.
4. 본당소속 신부·수녀 부모님 초대: 9일 12시 장소-사제관.
5. 성서교실: 매주 금요일 전10시, 후8시(비수출발 9시30분).
6. 빈첸시오 창립 임원: 회장-김경남, 부회장-이문자, 총무-원옥자, 회계-양순자, 회합-매월 첫토요일 전10시 사제관.

7. 회의: 자모회-8일 전10시30분, 제대회 월례미사-10일후3시.
 8. 평화M, E 가족모임: 매월 둘째 목요일(9일) 후8시, 필기도구
- ☐ 지난주 봉헌금: 620,400원 ☐ 교무금: 670,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공식미사후.
 2. 자모회: 공식미사후.
 3.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야외미사: 5월12일(일), 오전 10시까지 효자우전국민학교(본당미사는 없음).
 5. 반모임: 8일(수) 오전10시30분-금화·송린.
 6. 가정방문: 30일(화) 신일아파트, 성원골드맨션, 5월1일(수)-화산2가-2를 방문했습니다.
- * 금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김옥희, 김태진
차주 전례: 김용무 독서·봉헌-민혜리·유대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한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기도서 19면).
1. 경축: 예수승천대축일! (다음주 12일) 남전주지구 야외합동미사-우전국교(오전10시미사) 미사후 체육대회 있습니다. 준비: ① 미사도구 ② 점심 ③ 운동에 편리한 복장(본당에서는 06시와 오후7시미사만 있습니다), 2. 초종교 학생들을 주일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킵시다(어린이미사-토 오후3시, 중고생미사-토 오후5시), 3. 모임안내: 안나회(오늘 11시미사후), 골라라회(수 10시30분), 4. 구역형제회 미사: 성당주변(금, 후8시), 상용A(금, 후8시), 5. 가정방문: 계시관 참조, 6. 직장인을 위한 미사: 화, 후8시, * 예비자를 1인이 한분씩 인도합니다(성당청소-계시관 참조, 교무금 신일 속히 합시다.)
- ☐ 지난주 봉헌금: 999,620원 ☐ 교무금: 1,583,000원
☐ 공사를 위한현금: 1,217,850(4월중) 협조에 감사합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 예수승천미사: 우전국교 오전10시.
1. 사목회: 저녁미사후, 2. 구리아: 공식미사후.
 3. 제대회: 6일(월) 오전10:00.
 4. 성모자모회: 10일(금) 어머니미사 후.
 5. 공소미사: 10일(금) 오후2:00 독배, 오후7:30 이서.
 6. 반미사: 7일(화) 저녁8:00 한신코아3반, 8일(수) 저녁8:00 한신4반, 9일(목) 저녁8:00 신리반.
- 신축현금 총신입액: 92,710,000원 봉헌액: 405,000원
금주 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 김용신 ② 박순자
기도-이태영, 박명숙
- ☐ 지난주 봉헌금: 793,400원 ☐ 교무금: 1,412,000원
☐ 2차현금: 465,100원

복자 성당은 병인박해로 인한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기념으로 교구 사목계획에 의해 1965년 12월 22일 복자 성당이 설립되었다.

성당 건립은 교구 내 전신자들의 헌금으로 1967년 3월 성당 건축 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그해 10월10일에 완공 축성하였다.

교구 내 신자들에 의해 성당을 건립한 본당 교우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1968년 8월 사제관을, 1969년 10월 사무실 및 회의실을, 1984년 4월에는 수녀원을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신자들의 기증으로 성모상, 79위 벽화, 김대건 신부상 등이 세워지게 되었고, 각 신심단체의 결성 등 활발한 본당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본당 설립 목적과 그

고유한 영성에 따라 신자들의 활동과 가난한 이들을 돕는 빈첸시오의 집 운영도 열성으로 하고 있다.

전주교구 전신자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의미도 크지만 순교자들의 열을 기리는 의미로 세워진 본당이라 뜻이 크다. 그래서 그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교구 내 신자 및 이곳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에게도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순교자 유해실을 새로이 마련하여 순교자들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다.

이곳은 순교자 유해, 특히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계시며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도 모셔져 있으니 성지 중의 성지라 아니할 수 없다.

물음이 없다. 잊는다.

“
순교자들의 삶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순교자 유해실을 마련하여...
”



12월 10시-17시(미사있음) 광주 시민회관, 대상-17세 이상 남녀 (기혼자 포함).

5.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5월6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6. 전례음악 지휘법 교육: 5월11일(토) 오전10시 종교음악연구회 연습실(가톨릭센터 4층), 대상-각 본당 지휘자·성가대 및 관심있는 분, 강사-최병철 교수.
7. 전국 J. O. C. 선배 만남의 날: 5월12일 11시-17시 대전 성모여고 운동장, 출발-중앙 성당 8시30분, 주현동 성당 9시30분.

- **성소모임** 예수고난회(피정): 5월11일(토) 오후5시-12일 본원(062)571-5004, 회비-3,000원.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1) 유기농법=생명의 농법(農法)

사람과 땅이 건강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우선 가능한 작물부터 유기농법을 실천해봅시다.

쌍방울 { **트 라 이** **빌** }
기 념 타
목 화 직 매 장
이리시 영동동(동부시장)
마동 신협 앞
☎ 53-5059 박심은(이가다)

백운전자
방송용 앰프 설비(인켈, 롯데)
학교, 교회, 강당, 빌딩, 새마을
비디오 촬영, 각종 마이크
전주 중앙시장통(시민의국 앞)
☎ (0652) 252-0231
백정수(리노), 이순남(대리사)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 아르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아파트 사거리)

웨라톤 명과
특수계약전문(회갑, 약혼, 개업)
제과, 제방, 단체주문, 신속배달
교우 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88-9772
박 현 순(주리야)
전동 시외버스 간이 터미널 옆

†호성동성전 건립 대바자화
1.주관: 호성동 성당 사목회
2.행사 목적: 신실 본당 공동체 일치와 타 본당과의 유대 증진
3.일시: 1991. 5. 24~5. 27(4일간)
4.사업 내용: 판매 사업, 경품권 발매 (₩2,000) 나눔 장치
5.경품 내용: 대상 1명: 액셀 승용차
특상 1명: 피아노
1등 1명: 오디오
2등 3명: T·V
3등 5명: 냉장고
행운상·나눔상: 각100명
6.경품 추첨일: 1991. 5. 27. 15:00
(경찰인차) 추첨 공고: 전북일보
(5. 28일자), 순정, 호성 성당 게시판

축/개업
동산 쌍방울 직매점
트라이·란제리·비비안·Y셔츠
조조 새마을 금고 옆
☎ 211-5060
이오환(요한) 양진희(에나디아)

현대기획
전북사진학원
• 상업 사진 • 사진 교육
• C·F 제작 • 슬라이드 제작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8-15
☎ (0652) 82-0700, 72-1174
최용부(바오로), 이수현(수신나)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로
☎ 84-7294

우리반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조기리아)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사노동 632-11(중앙성당 옆)
☎ 85-8848

축/개업
삼익악기동서로판매장
피아노, 교회용전자음원, 관·현악기·연주용악기
(각종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상담)
김 태 우(알봉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 88-7718

김치과 의원
미원동 시거리 최병상 소아과 2층
☎ 42-7586
원장 김 기 성(동보스코)

“나자렛 예수자매회”성소자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동어촌 선교 및 공소사목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케 나서고자 합니다. 입회해 뜻이 있으면 분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농어촌 선교 및 공소사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10세 미만의 고교 학력 이상인 자로서 영세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신앙이篤실하고 건강한 미혼여성, *문의처: (635-950) 경남장영군 성안면 순물 2구 206번지
유영호(바울로) 신부 ☎ (0559) 32-6295

신문 부케 신문집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법 디도
☎ 84-2628

백제세차장
세차 및 오일 에어크리너 교환
대학병원 사거리 전주농조 옆
☎ 74-9006
안 상 우(로마노)

소원을 풀어주고 싶단다.

사례 ②

남아주신 엄마는 서비스업종의 직업여성. 아빠는 직장을 다니던 가장. 두 사람의 잠깐 불장난으로 태어난 이 어린 생명은 다행히 신앙이 있는 길러주신 엄마의 사랑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던 시절은 행복했다. 사춘기 때 우연히 알게 된 출생의 비밀. 남아준 엄마를 찾는 건 본능이다. 찾아간 엄마의 모진 냉소에 되돌아오던 때 아빠가 몹시도 미웠다. 후에 알았지만 그때 엄마는 불치병으로 죽음에 임박해 있었고 자식에게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방황과 번민에 그 소년 또한 머물 곳은 한 곳 조직 폭력단. 남들보다 커다란 체구는 그들의 눈에 쉽게 띄었다. 세상에 대해 조금 알고 난 후 아편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아빠와 가정 안에서 평범하게 살고파 기다렸는데 퇴소를 몇 개월 남기고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허탈한 그 소년의 눈망울에 이슬이 고여 있었음이 기억된다.

이렇듯 부모의 불행한 가정생활은 즉각 자녀들에게 영향이 된다. 화목하고 가정적인 부모 밑에 착하고 효

사례 ③

방화범. 이 소년의 친구는 마을의 유지급 아들이며 심한 말썽장이었다. 남의 집 헛간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큰불로 번졌다. 망을 보던 이 소년이 발견했을 땐 걸잡을 수 없었고, 즉시 어른께 알려 진화를 했는데 억울하게 방화범은 자신이 되고 말았다. 돈 많고 권력있는 그 친구는 풀려나고 가난에 찌든 이 소년은 황금기인 청소년 시기를 어두운 그늘에서 살게 되었다. 가난과 무지와 사회 모순의 결과이리라.

사례 ④

친구들과 어울려 하교를 하던 중 지나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실수 하나가 용서의 대사에서 제외되어버렸다. 순간의 우발적인 사고는 용서해줄 수 있을텐데.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줄 수 있을텐데.

사회의 모순된 구조악은 불행한 청소년들을 낳게 되는 것 같다. 빈부의 차가 심하고 서민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어 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가정 대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한다.

〈전주 소년원 천주교반 제공〉

숲정이 산책



이래서야...

※ 건국 청소년 용역 전문업체 라자로 미화 용역사

• 취급업무 ① 아파트 및 각종 건물, 외부 유리, 타이틀 청소 전문
② 청소 전문 요원 파견 근무 및 각종 사무실 내부 바닥 청소, 화식 작업 일체
• 연락처: 전주 숭실이 성당 내
• 전 화: (0652) 253-3765, 251-9375
대표 양 동 술 (라자로)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복수화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봉남문, 호리, 송악로 사거리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사무소

☎ (0652) 87-0088
83-0087, 83-0088
무선호출기 201-7220

토지·임야·주택·상가·APT 전세 매매 알선

새성전 은인 구할

송학동 세성전에 필요한 비품 은인을 찾습니다

1. 제대 비화 (프레스코화) : 500만원
2. 제 단 (도 자 기) : 200만원
3. 청호지화 (상 문) : 200만원
4. 감 손 실 (도 자 기) : 100만원
5. 감 손 대 (도 자 기) : 100만원
6. 기 타 : 뜻대로

송학동 성당

문의 전화: (0658)
3-9713 (사무실), 51-5340 (사제관)

김형곤 내과 의원

원장 김 형 곤 (베드로)
유 숙 영 (헬레나)

김제시 오촌동 전북빌딩 1층

☎ 45-008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 윤 경 (유리앤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외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 2-8653

흥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부보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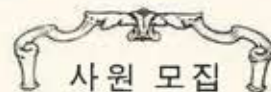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미카엘라)

호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맥코이 이온 정수기



○영업직: 00명
○업무직: 0명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함)

*맥코이 이온 정수기
전북 사업소:
군산 63-0774, 61-5545
이리 858-0478

고 경 우 (프림치스코)

부안군 출포면 출포공소
사택 여직원 채용.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바람.

☎ (0653) 82-0115

김 복 례 (도미니카)

사람을 찾습니다

이 불 욱 (베드로) 34세
연락처: 85-7616 (자 택)
84-3222 (전동성당)

어머니가 애타게 기다립니다.

사무장 모집

자격: 1. 영세후 3년이상된 남자 2.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3. 영세필자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영세증명서 1통
3. 면허증 사본 1통 4. 본당신부 추천서
미감일: 1991년 5월 12일
면접일: 1991년 5월 15일 오전 11시

부안 천주교회
☎ (0683) 84-1333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이해와 용서는 물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배려를 전제로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보여질 수 있겠지만, 혈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세분되어 있는 오늘의 조직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의 영향으로 이웃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대결과 경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불안한 모습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형편이 아닌가?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데에는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파렴치한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취할 삶의 방식일 수는 없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위하는 일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임을 터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계명으로 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당신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하여라”(요한 15, 12).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위하는 일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가치이다.

주택문제 또한 심각한 지경이다.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나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집 없는 가정이 해마다 턱없이 오르는 방세를 마련치 못해 변방으로 변방으로 밀려나가거나 칸수 면적을 줄여가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쫓기다 못한 수도권외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을 만들어 지난달 하순 서울 장충동 공원에서 ‘주거권 쟁취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오막살이 집 한 채 마련할 기대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노동 친시 풍조에서 비롯되는 교육열도 가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талан트를 타고나며 각자의 талан트에 따라 일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잘못된 임금체제와 허위의식 때문에 모두가 대학을 졸업해야 삶의 티켓을 얻는 양 허풍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치 못하는 자녀를 외국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낄망정 허영이나 과소비라고 나무라지는 못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밖에 사회나 워킹자에게 핑계될 수 없는 가족상호간의 물이해가 가정의 단란에 흠집을 낸다. 50대의 부모들이 옛적의 가파르기만 했던 ‘보릿고개’ 얘기로 2세들의 기를 꺾으려 들면 2세들은 “그것은 옛날 얘기일 뿐”이라며 부모들의 고루함을 지적한다.

이 아름다운 성도님의 계절을 맞아 모두의 가정을 ‘즐거운 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기심을 버리고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꿔야 하겠다.

■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

어느 국민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글짓기 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어느 어린이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한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꽤 부유한 집에서 자라는 이 어린이가 자기의 친구 집에 가보니, 자기네보다 못 살지만 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레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것을 보니 펍 부럽더라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차가운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정부가 지어주는 밥을 마지못해 먹고 다니는 우리 자녀들의 호소인 것이다.

